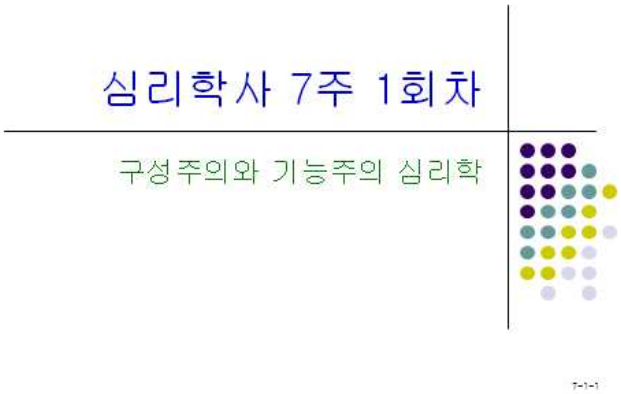
7-1강 file no.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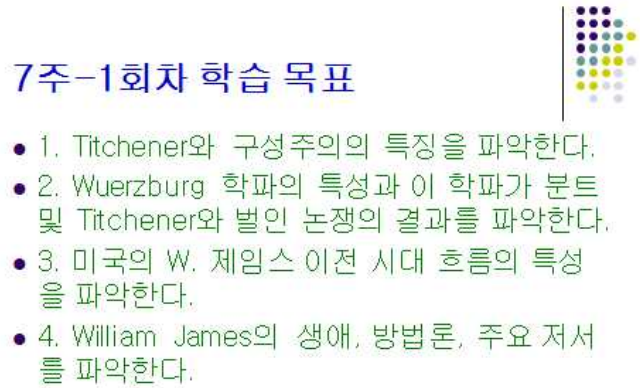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심리학사 제 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강의의 내용은, 구성주의와 기능주의 심리학이 되고 여기서는 구성주의의 대표적인 티치너 그다음에 기능주의를 이끌어낸 윌리엄 제임스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1회 차에서는 티치너 얘기를 많이 하고 2회 차에 가서 윌리엄 제임스를 얘기하고 기능주의 일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강 file no.2

7주 1회 차 학습 목차를 보시면 티치너와 구성주의. 라고 해서 티치너의 구성주의 이론체계를 얘기하고 구성주의의 연구책략, 구성주의의 몰락, 구성주의의 종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트 심리학의 다른 형태인 부르츠부르크(Würzburg)학파가 무엇을 했는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임스 이전시대의 흐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제임스의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방법론 얘기를 하고 저술 얘기를 하겠습니다.

7-1강 file no.3



7주 1회 차 학습 목표는 티치너와 부르츠부르크학파의 특성과 이 학파가 분트 및 티치너와 벌인 논쟁의 결과를 파악하고,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 이전 시대의 흐름의 특성을 파악하고 윌리엄 제임스의 생애와 방법론 주요 저술을 파악합니다.

7-1강 file no.4

1. Titchener와 구성(구조)주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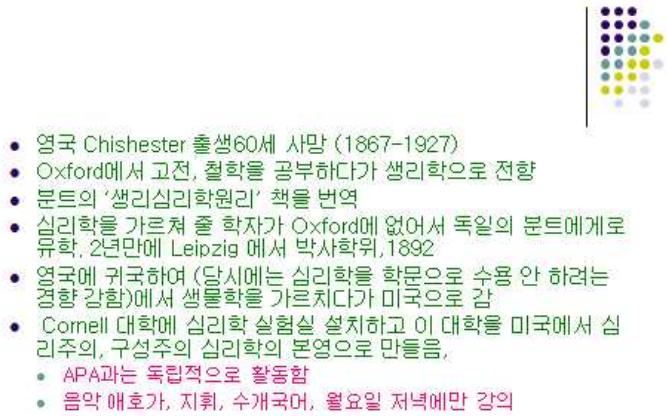
그러면 이제 본 강의로 넘어가서 티치너와 구성주의를 얘기하겠습니다. 티치너는 영국인이었습니다. 티치너는 (Edward Bradford Titchener (1867-1927; http://en.wikipedia.org/wiki/Edward_B._Titchener; http://psychclassics.yorku.ca/Titchener/structuralism.htm;

1) 'Structualism'은 한국의 인문사회과학에서는 '구조주의'로 번역되지만, 심리학계에서는 이의철 교수의 [심리학사] 책 이래로 '구성주의'라고 지칭되어 왔기에 이 강의에서는 '구성주의'로 표시하겠습니다. 인문사회과학의 구조주의와는 약간 다른 의미를 지칭한다는 맥락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http://campus.udayton.edu/~psych/DJP/histsys/pdfhs/hsTitch.pdf
http://web.sau.edu/waterstreetmarya/titchener.htm;)

영국인으로써 독일 심리학을 미국에 옮겨온 사람인데, 생리학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영국의 연합주의를 심리학 연구 틀로 만들었습니다. 분트심리학의 내용이나 방법, 기풍을 답습하긴 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수정을 했고 제임스 밀의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연합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먼저 분트의 심리학을 영국 연합주의에 통합한 틀을 제시했습니다. 티치너가 거쳐 간 것을 보면 영국 연합주의를 거쳐서 실증주의에 조금 기울어졌다가 분트 실험심리학에 빠져들었다가 미국에 건너가서 자기 나름대로 구조주의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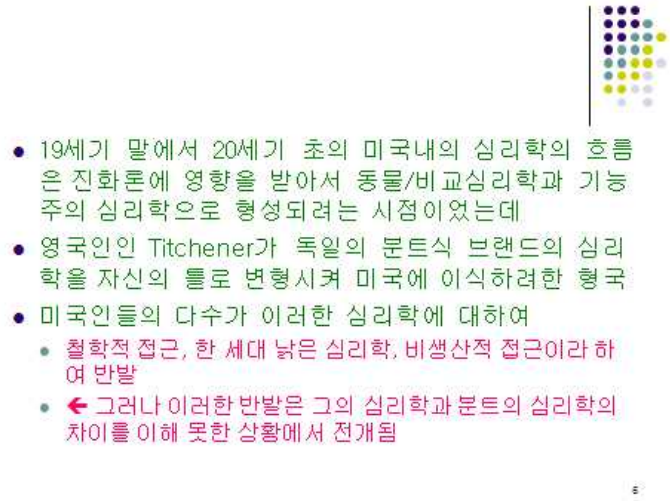
7-1강 file no.5



티치너는 영국 Chishester에서 출생해서 60세에 사망했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고전과 철학을 공부하다가 생리학으로 전향해서 옥스퍼드 대학에 재학해있는 동안에 분트의 생리심리학 원리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에 심리학을 자기에게 가르쳐줄만한 학자가 없어서 독일의 분트에게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분트에게서 2년만에 라이프찌히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영국에 귀국하였지만, 그 당시 영국은 심리학을 경험과학으로써 철학에서 떨어져 나온 별도의 학문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 귀국해서 생물학을 가르치다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코넬 대학에서 심리학 실험실을 설치하고 이 대학을 미국에서 심리학의 구성(구조)주의 본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학위가 없이도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사학위가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티치너는 미국에서 코넬 대학 중심으로 자기 심리학을 전개를 하면서 미국의 심리학 학회, APA와는 독립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수개국어를 했고 월요일 저녁에만 강의를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7-1강 file no.6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미국 심리학의 흐름은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동물 비교심리학과 기능주의 심리학으로 형성되려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영국인인 티치너가 독일의 분트식 브랜드의 심리학을 자신의 틀로 변형시켜서 미국에 이식하려던 그런 모양이었는데 미국인들의 다수가 이러한 티치너의 구성심리학에 대해서 이건 철학적 심리학이고 한 세대 낡은 심리학이고 비생산적,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 결과가 나오기 힘든 접근이라고 해서 반발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미국 내 심리학자들의 이러한 반발은 티치너의 심리학과 분트의 심리학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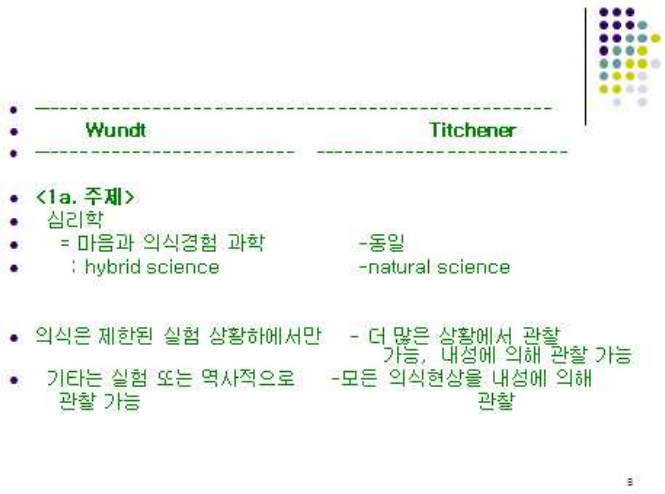
7-1강 file no.7

1.1. 티치너의 구성주의 이론체계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티치너의 구체적인 이론 체계를 얘기를 하는데, 티치너는 심리학의 주제라는 것이 'experience as it is dependent on experiencing persons', 그러니까 객관적 자극 자체보다는 경험하는 사람의 즉각적인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일반 다른 과학의 주제는 간접적이며 중재(매개)된 경험인데 반하여 심리학의 주제는 즉각적인, 1인칭의 그런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티치너는 'Stimulus Error'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 이는 경험 자체와 그 자극 대상을 혼동하면서 오는 오류인데 경험된 내용을 주관적으로 (예: '검푸른 바다'라고 언급하기)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자극 특성(예: 색깔 이름을 주관적으로 붙이지 않은, 원래 감각된 그대로의 바다 색깔)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시점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경험의 총체라고 보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경험들이 시간 경과 상에서 축척된 것의 전체라고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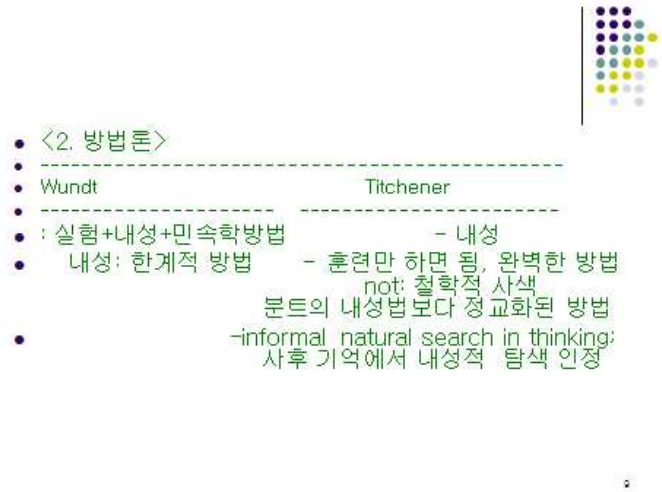
7-1강 file no.8



그래서 분트와 티치너의 입장의 차이를 대비를 시켜보면(슬라이드 표 참조), 첫째로 [심리학의 주제]에 대해서 분트와 티치너는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둘 다, 마음과 의식 경험을 연구하는 과학이 심리학이라고 보았는데, 둘의 차이는 분트는 심리학을 자연과학, 실험과학 더하기 민속심리학과 같은 그런 측면이 가미된 일종의 혼혈적 과학(Hybrid Science)이라고 보았는데 반하여, 티치너는 심리학을 자연과학이라고 본 것입니다. 분트는 의식은 제한된 실험 상황에서만 관찰가능하다고 보았는데, 티치너는 더 많은 상황에서 관찰가능하고 내성에 의해서 관찰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트는 의식 이외의 다른 것들은 실험 또는 역사적으로 관찰가능하다고 보았는데, 티치너는 모든 의식 현상을 내성에 의해서 관찰 가능하다. 관찰해야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7-1강 file no.9



그 다음에서 보시면 이들이 채택한 [방법론]이 얘기되는데, 분트는 실험, 내성, 민속학 방법의 세 개를 다 심리학 방법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본 반면에, 티치너는 내성만 체계적으로 하면 된다고 그렇게 보았고, 분트는 내성이 제한적인, 한계적인 방법이라고 본 반면에 티치너는 내성이 완벽한 방법이며 훈련만 잘 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내성법이 철학적인 사색, 즉 그 옛날 중세의 아퀴나스나 그런 사람들이 한 철학적 사색 방법이 아닌, 티치너의 내성법 방법은 정교화 된 방법이고 분트의 내성법보다는 잘 가다듬어진 체계화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티치너는 어떤 심적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기억에서 거꾸로 그걸 추적해서 내성적으로 탐색하는 것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7-1강 file no.10

다음에 분트와 티치너의 다른 차이는 슬라이드 표에서 보면, [진리 기준]의 차이인데, 분트는 정확한 내성을 묘사하고 기술하는 과정, 즉 조금은 순수한 내성 이외의 내용이 더 들어가는데, 티치너는 오로지 순수한 내성만 얘기했습니다. 분트는 이론적 추론, 역사적 분석, 그리고 설명까지 필요하다 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티치너는 심리학이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설명이 아니라 기술만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트는 심적 화학 그러니까 요소들이 합해지면 새로운 것들이 산발적으로 생겨난다 라는 것을 강조한 반면에, 티치너는 그렇지 않은 측면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티치너는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심적 화학]과, 단순히 기계적으로 요소들을 조합해서 요소들의 합이 전체인 [심적 역학]의 중간을 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트는 요소주의적이지만 통합성을 강조했고, 티치너는 원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으며, 분트는 창조적인 통합 그 다음에 통합적 지각인 'apperception', 즉 통각을 얘기를 했는데, 티치너는 가능한 한 그것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7-1강 file no.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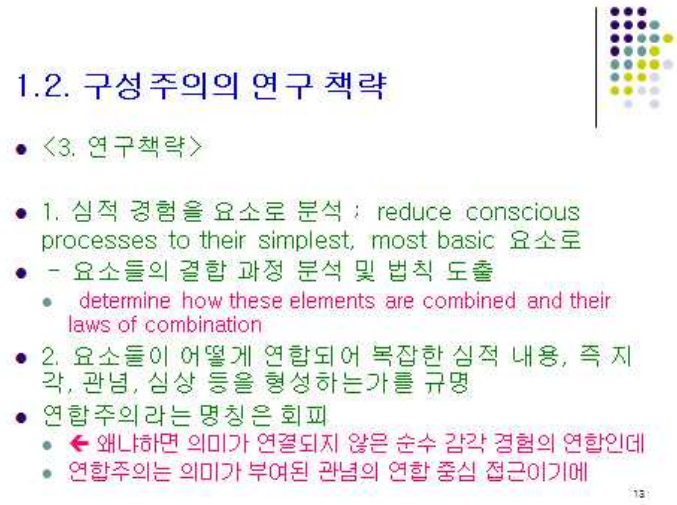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심리학의 또 다른 주제인 정서에 대한 이론에서, 분트는 정서를 세 개의 차원, 즉 [쾌-불쾌], [흥분-안정], [긴장-이완]의 세 차원으로 나눠봤는데, 티치너는 모든 정서를 [쾌-불쾌] 차원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트는 [사고]는 내성으로 분석 불가능하고 문화적 역사적으로만 접근가능하다 라는 입장을 전개한데 대해서, 티치너는 사고도 내성으로 접근 가능하다 라고 보았습니다. 분트가 사고는 감각경험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한 것은 티치너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통합원리에 대해 생각하여 보면, 분트에 의하면 심리적 관련성에 의해서 요소들이 통합된다고 보았는데 티치너는 기계적인 단순한 연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분트는 통합적 지각, 즉, 통각을 강조를 했는데, 티치너는 통각이라는 개념은 감각적 경험의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는 개념이고 추론된 개념이고 내성하거나 관찰 불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에 통각이라는 개념은 심리학에서 사용하면 곤란하다 라고 해서 배척을 했습니다. 한편 분트는 심리적인 대비, 결과의 상이성 , 심적 성장, 창조적 통합 이런 것을 강조를 했는데 티치너는 맥락이 대상이나 관념에 의미를 부여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1강 file no.12

7-1강 file no.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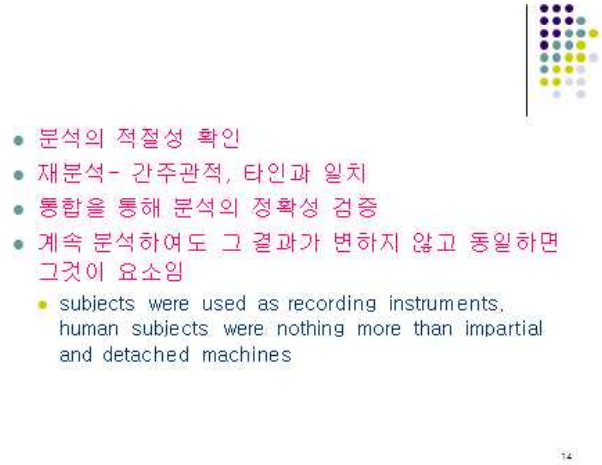


1.2. 구성주의의 연구책략

분트와의 이러한 차이점을 놓고 티치너는 구성주의의 연구 책략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리학 연구자는 심적 경험을 요소로 분석해야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내용을 요소로 분석하는데 가장 단순한 요소들로 분석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요소들의 결합과정을 분석하고 결합되는 법칙을 도출해야 된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소들을 어떻게 연합해서 복잡한 심적 내용, 즉, 지각이나 심상이나 관념 등을 형성하는가를 규명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연합주의라는 명칭은 가능한 한 회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연합주의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의미가 부여된 Idea, 관념들의 연합 중심이었는데 티치너가 얘기한 것은 의미가 연결되지 않은 그 이전 단계의 순수 감각경험의 연합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는 영국 연합주의 식의 '연합'이라는 개념을 회피하려고 하였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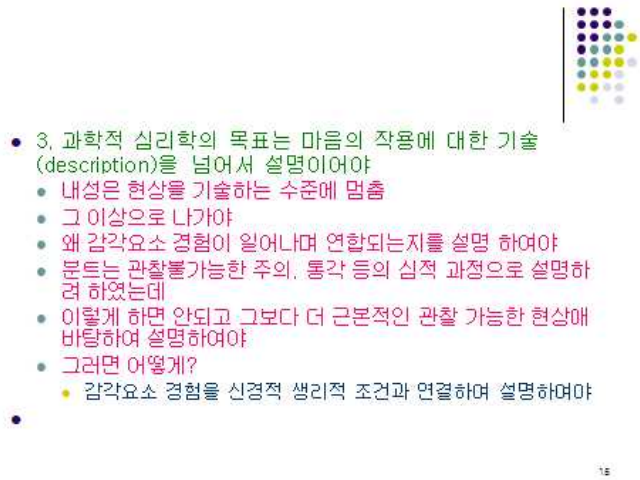
다.

7-1강 file no.14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내성을 통해서 분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분석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재분석을 통해서 타인과 간주관적으로 이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후에 통합을 통해 분석의 정ㅎ학성을 검증하고, 계속 분석하여도 그 결과가 변하지 않고 동일하면 그것을 의식의 요소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엄밀한 내성법을 강조하여서 실험실의 피험자는 내성보고를 제공하는 도구로 간주하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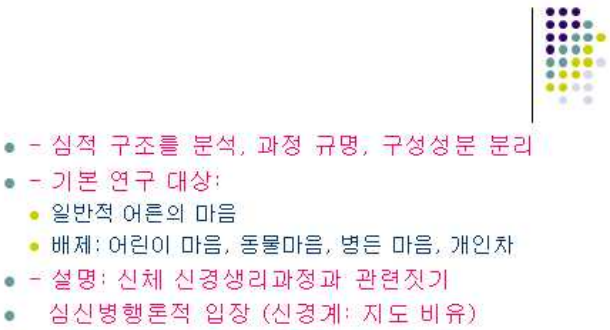
7-1강 file no.15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티치너는 과학적 심리학의 목표는 마음의 작용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을 넘어서 설명(explanation) 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과거의 연합주의 전통의 내성은 현상을 기술하는데서 멈추는데, 티치너는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왜 감각요소경험이 일어나며 또 연합되는지를 설명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분트는 이 설명을 관찰 불가능한 주의, 통각 등의 심적 과정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티치너

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무엇, 즉, 관찰 가능한 현상에 바탕을 두고서 설명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겠다는 것이냐고 물으면, 의식의 감각 요소들을 관찰 가능한 신경적 생리적 조건들과 연결해서 이러이러한 의식의 요소들이 이렇게 연합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신경적 생리적 조건과 관련되어있다는 식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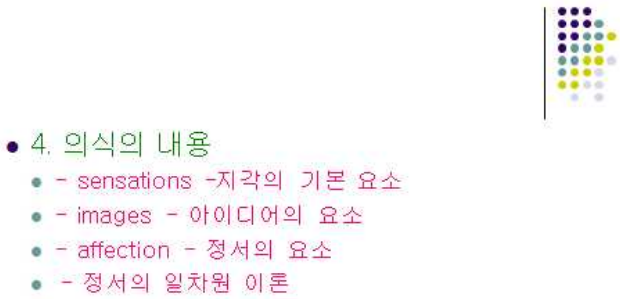
7-1강 file no.16



16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구성주의자들은 그렇게 심적 구조를 분석하여 마음의 구성성분 요소들을 갈라내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 티치너는 기본 연구 대상으로 일반적 어른의 마음만,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내성될 수 있는 그런 심리현상만 다뤘지 어린이의 마음이라든지 동물 마음이라든지 병든 마음이라든지 개인차, 이런 것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 신경 생리 과정과 관련지어서 설명하려고 했고, 일종의 심신 병행론적 입장을 제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요소들을 어떻게 결합하느냐 하는 것은 신경 생리적, 신경 생물적 바탕에 의한다 라고 주장했으니까 티치너는 나름대로 두개를 병렬적으로 연결시키려 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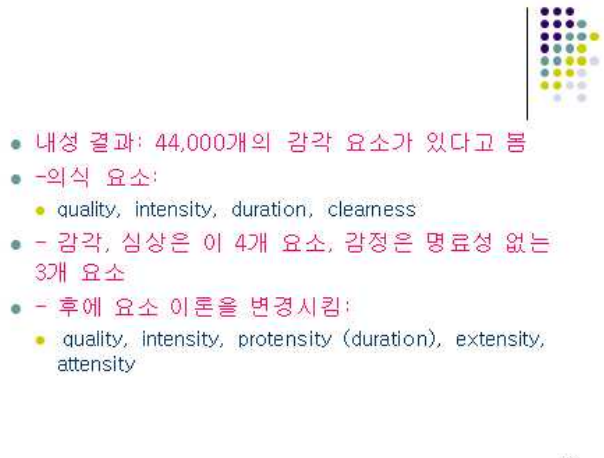
7-1강 file no.17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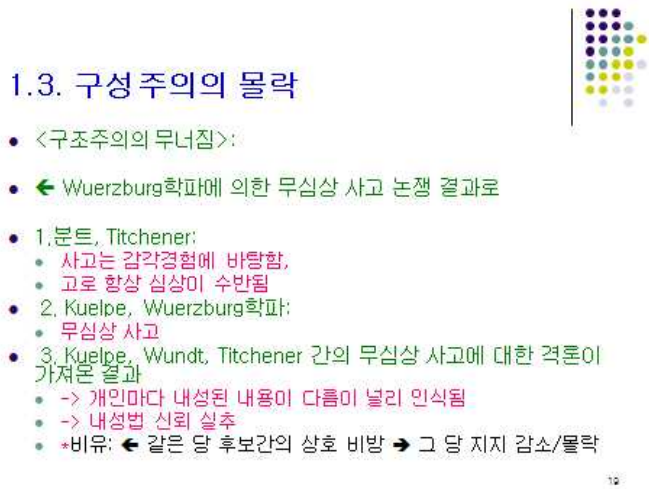
그리고 티치너는 우리가 의식의 내용을 환원시키고 분석해서 내려가면 기본적으로 세 개의 요소가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감각, 이미지(심상), 정서의 세 요소가 의식의 기본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서라 하는 것이 쾌-불쾌 일차원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7-1강 file no.18



실험을 통해서 내성한 결과에 의하면, 티치너는 우리 인간에게는 사만 사천 개의 감각요소가 있다고 보았고, Quality(감각질), 강도, 지속기간, 명료성이 의식의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감각이나 심상은 이 네 요소가 다 있는 것이고 감정은 명료성이 없는 삼개 요소만 있는 것이라고 처음에는 보았는데 후에 그는 이 이론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티치너의 이론체계와, 티치너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연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티치너의 구성주의의 몰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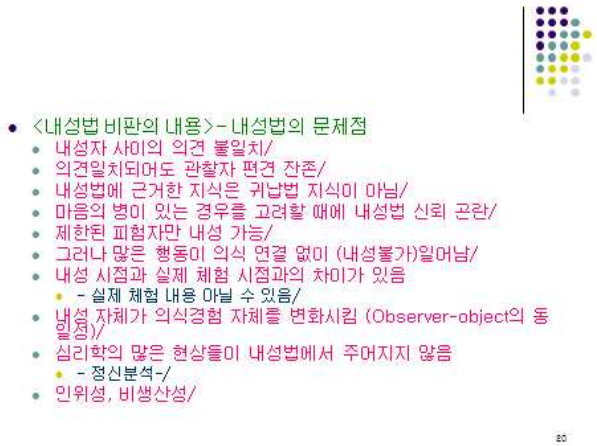
7-1강 file no.19

1. 3. 구성주의의 몰락

구성주의의 몰락은 한편으로는 구성주의에 대한 미국 내 심리학자들의 반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의 뷰르츠부르크학파와의 논쟁 결과로 무너진 면도 있습니다. 분트와 티치너는 인간의 사고는 감각 경험에 기초한다 라고 했고, 사고, 마음의 내용에는 항상 심상(Image)이 수반된다고 보았는데, 독일 뷰르츠부르크학파의 Külpe는 무심상적 사고의 존재와 그 특성에 대한 언급을 제시하며 감각적 이미지가 없는 사고(imaeless thought)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결과로 보여주어서, 두 진영 사이에 굉장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쿨페(Külpe), 분트, 티치너 간에 무심상 사고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는데 그 결과로 드러난 것은 내성하는 개인마다 내성된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마다 같은 대상에 대한 경험이라도 그 내성 내용이 다르다면 내성법의 방법이 객관성이 있느냐 해서 내성법 방법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실추되었습니다. 서로 비방하다가 같이 몰락하는 경우가 된 것이죠. 뒤에 가서 쿨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7-1강 file no.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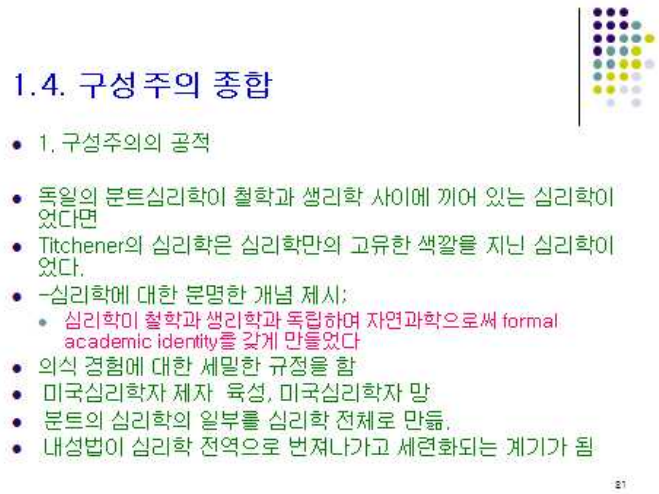


분트와 티치너 특히 티치너가 강조한 내성법에 대해서 비판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점차 제기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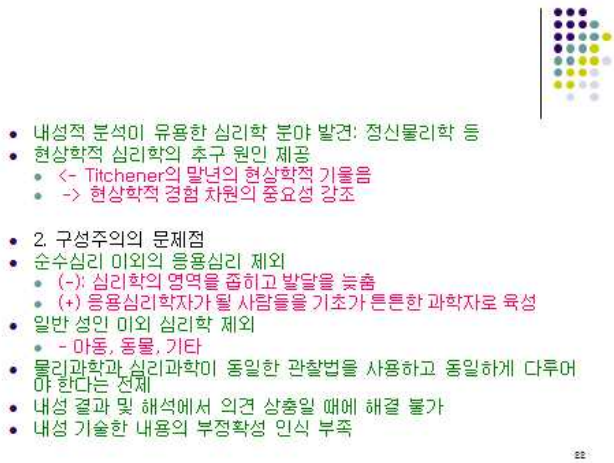
그것은 첫째로는 내성자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성법이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설령 의견이 일치되어도 관찰자 편견이 잔존하기 때문에 편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내성법에 근거한 지식은 귀납적 지식이 아닐 수가 있고 추론된 지식일 가능성이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이 있는(정신병) 경우를 고려할 때 이들에게 내성법을 시행하기 곤란하므로 제한된 피험자만 내성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많은 행동의 경우에 의식 연결 없이 내성 불가능한 그런 의식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그 다음에 내성 시점과 실제 체험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으니까 보고된 내성 보고는 실제 체험 내용이 아니고 구성되어 지어낸 것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한 내성한다는 활동 자체가 의식 경험 자체를 변화시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따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내성하다보면 개인의 의식 경험 자체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정확한 내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많은 현상들이 내성법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는데 정신분석 같은 상황은 내성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성은 자연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현상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 비생산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이 일었는데,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구성주의가 몰락이 되었습니다.

7-1강 file no.21



7-1강 file no.22



1.4. 구성주의 :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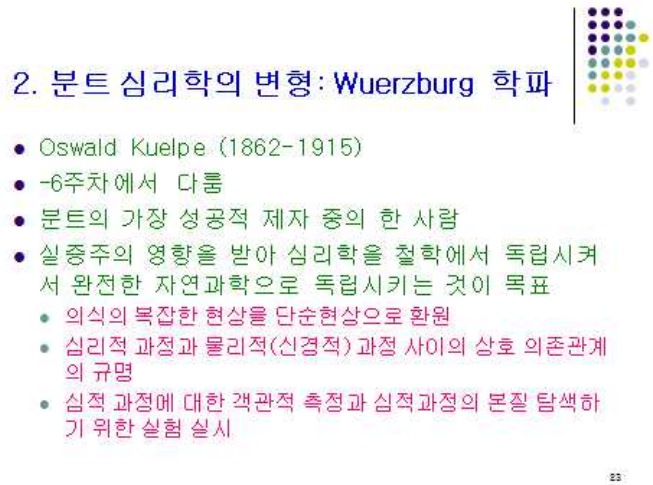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성주의에 대해서 종합적인 얘기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주의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독일의 분트 심리학이 철학과 생리학 사이에 끼어있는 심리학이었다면, 티치너의 심리학은 심리학만의 고유한 색깔을 지닌 심리학이었다. 그러니까 독일의 분트 심리학은 철학에서부터 독립하면서 생리학의 실험방법을 가져다 연결

시킨 조금 어중간한 그런 심리학이었다면, 티치너의 심리학은 자체 고유의 색깔을 지닌 심리학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철학과 생리학과 독립하면서 자연과학으로써 자연적인, 공식적인 학문으로써의 Identity를 갖게 했다. 라는 것입니다. 티치너의 구성주의는 의식경험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했고, 티치너는 미국 심리학 제자를 육성해서 미국 심리학자 망을 만들고 분트의 심리학 일부를 한동안 심리학 전체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트는 내성적인 심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의 심리학도 강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내성법이 심리학 전역으로 번져가고 세련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성주의는 정신물리학 등과 같은 내성적 분석이 유용한 심리학 분야를 발견하여 더욱 전파되었습니다. 또한 현상학적 심리학의 추구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Titchener는 말년에 현상학적 기울어서 현상학적 경험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성주의의 문제점을 열거하자면, 구성주의 심리학은 순수심리 이외의 응용심리 분야는 제외한 제한적 심리학이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응용심리학자가 될 사람들을 그들의 기초학문적 바탕이 튼튼한 과학자로 육성히였다는 공헌도 하였습니다. 하여간에 구성주의 심리학은 심리학의 영역을 좁히고 심리학의 전반적 발달을 늦추는 데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성인 이외의 아동, 동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학을 제외할 수 밖에 없었으며, 물리과학과 심리과학이 동일한 관찰법을 사용하고 동일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전제를 하였기에 내성 결과 및 해석에서 연구자들의 의견이 상충할 때에 해결 불가하였으며, 내성을 기술한 내용의 부정확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였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7-1강 file no.23



다음에는 티치너를 넘어서서 분트 심리학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르츠부르크학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표되는 학자가 오스발드 큘페(Oswald Külpe)였습니다. 6주 차에서 조금 다뤘는데 다시 한번 얘길하겠습니다. 분트의 가장 성공적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큘페는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심리학을 철학에서 독립시켜서 완전한 자연과학으로 독립시키려는 것이 목표였고, 의식의 복잡한 현상을 단순 현상으로 환원시키고 심리적 과정과 물리적, 신경적 과정 사이에 상호 의존적 관계를 규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적 과

정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을 강조하였는데 그의 대표적 업적은 무심상적 사고의 발견이었습니다.

7-1강 file no.24

2.1. imageless thought

- 분트의 초기 관점을 도입
- 엄격한 내성에 의해 심적 과정을 밝힐 수 있다고 봄
- Kuelpe가 도입한 방법; Asusfragen
  - 분트의 내성법 Kuelpe의 내성법
  - ---------- ----------
  - 실험상황이 단순 - 복잡
  - 단순히 반응시간 측정 - 실험자가 자극에 대한 질문을 던짐
    또는 자극을 기술하게 함 - 피험자가 심적 과정 질문에 대답
  - - 피험자가 심적 과정 내성 보고
- 뷰르쯔부르크 학파의 연구 결과
  - 감각적 심상이 없는 사고 과정도 있다: 분트 입장에 모순 결과
  - 사고는 수동적 표상과정이 아니리 능동적 활동이다
    - Brentano의 영향

84

7-1강 file no.25

- 뷰르츠브르그 학파의 학자들
- 엄밀한 내성에 의하여 사고과정을 내성 보고함
  - A.M. Mayer, J. Orth,
  - 같은 결과를 프랑스의 A. Binet 가 발견
    - 그러나 뷰르츠부르그 학파의 연구결과를 몰랐기에, 자신의 방법을 " method of Paris" 라고함
- 결론: 사고는 무의식적 과정이다
- 두 진영의 격렬한 논쟁
  - 분트, Titchener: 사고에 심상이 부수된다는 증거 제시
  - 뷰르츠부르그 학파: 안된다는 증거 제시
- 제3자들의 생각:
  - -> 개인마다 내성된 내용이 서로 다르니, 내성법 신뢰 실추
  - -> 내성법, 구성주의 몰락하고 대비적 입장 떠오름: 행동주의

88

부르츠부르크학파가 찾아낸 심리현상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무심상적 사고(Imageless though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트의 초기 관점을 도입하고 엄격한 내성에 의해서 심적 과정을 밝힐 수 있다고 보고 큘페가 도입한 방법이 'Asusfragen'입니다. 이것은 질문을 던지고 내성을 하는 것인데, 분트의 내성법과 큘페의 내성법을 비교해보면, 분트의 내성법은 실험상황이 단순한데 큘페의 경우는 복잡하였습니다.

분트의 경우는 단순히 자극을 주고 반응 시간을 측정하고 또는 자극 자체를 기술하게 했는데, 큘페의 내성법은 자극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피험자가 질문에 대답을 하고 그런 다음에 피험자가 자기가 자극을 본 이후에 일어난 과정들에서 내성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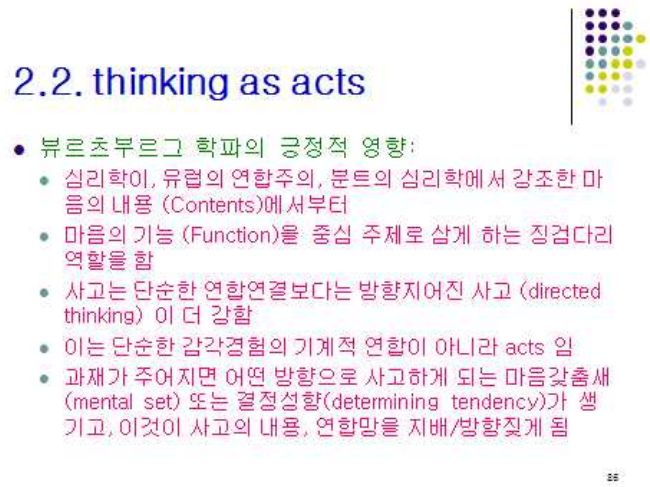
그런 결과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면, 사고나 의식 내용에는 감각적 심상을 떠올릴 수 없는 그런 사고도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트의 입장과는 기본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브렌타노(Brentano)의 현상학적 입장, 즉 마음이나 사고라는 것은 능동

적 활동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현상학적 입장과는 맞아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뷰르츠부르크학파들이 엄밀한 내성에 의해서 사고과정을 내성하여 보고하고 결론적으로 '사고는 무의식적 과정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분트, 티치너 진영과 뷰르츠부르크학파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상이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라는 찬반 논쟁이 전개되었는데, 그 전개되는 과정을 보고 있던 제 3자들에게는 '내성이라는 것이 내성하는 개인마다 내성의 내용이 다르니까, 내성법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서 자연히 내성법과 구성주의가 몰락하고 내성법, 구성주의에 반대되는 입장인 행동주의가 떠오를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티치너가 분트의 전통을 받아서 내성법에 중점을 두고 그걸 극단으로 밀고나가서 모든 의식 마음의 내용을 감각 경험과 연결된 것으로 환원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뷰르츠부르크학파의 '심상 없는 사고' 라는 현상이 드러나면서 구성주의 학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겠습니다.

7-1강 file no.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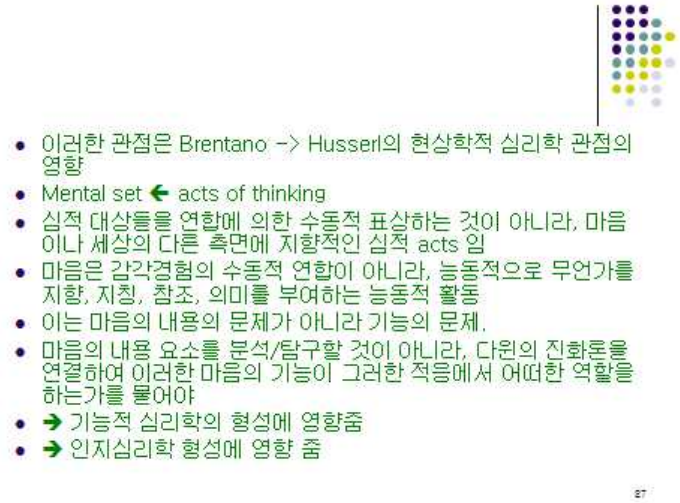
2.2. 활동으로서의 사고

그 다음에 활동으로서의 사고 (Thinking as acts)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철학에서 현상학의 입장인데 여기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뷰르츠부르크학파가 사고를 연구한 것의 긍정적 영향으로 대두된 의의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분트와 티치너까지의 심리학과, 티치너 이후의 기능주의 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 인지심리학 이런 심리학 사이의 경계선을 확 그어놓을 수 있는데, 분트와 티치너까지는 심리학이 의식의 내용 중심이었다면, 티치너 이 후 기능주의 심리학이나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마음의 내용이 아니라, 마음의 기능과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는 강조점의 변화가 뚜렷하게 일어났는데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한 것이 뷰르츠부르크학파였습니다.

뷰르츠부르크학파에서 심상 없는 사고를 강조한 그런 실험 결과를 설명하다보니까, 사고라는 것이 수동적인 연합과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어떤 방향으로 사고하게 되는 마음 갖춤새(mental set) 또는 결정 성향(determining tendency)이 생기고 그것이 사고의 내용, 연합망을 지배한다고 보았습니다.

7-1강 file no.27



이러한 관점이 브렌타노(Frnaz Brentano; http://plato.stanford.edu/entries/brentano/) - 훗설(Edmund Husserl; http://plato.stanford.edu/entries/husserl/)로 이어지는 [현상학적] 심리학 관점의('현상학과 심리학'(한글): http://www.sophia21.com/so-lec/le-104f.htm: 후설(지음) 신오현 (옮김); [현상학적 심리학 강의] : http://www.dlibrary.go.kr/JavaClient/jsp/wonmun/full2.jsp?v_kw_str=(%ED%98%84%EC%83%81%ED%95%99%EC%A0%81%20%EC%8B%AC%EB%A6%AC%ED%95%99%20%EA%B0%95%EC%9D%98)&v_db=4&v_doc_no=3724&mode=1)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입장에 의하면, 마음은 감각 경험의 수동적 연합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지향 즉, 지칭, 창조, 의미를 부여하는 능동적 활동이고 마음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이고,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심리학은 마음의 내용 요소를 분석 탐구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능이 그러한 작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논쟁, 논의의 배경이 기능심리학(functionalism in psychology)의 형성에 영향을 주어서 종국에는 20세기의 인지심리학의 형성에도 영향을 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1강 file no.28

- <구성주의 존재 의의 평가>
  - -학문적 아이디어의 발전은 틀린 생각의 융성에 대한 반발로 이루어질 수 있다.
  - -구성주의는 강한 독단론적 심리학을 전개함을 통하여, 그에 대한 반발로 행동주의 심리학, 형태주의 심리학 등 중요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 - a gallant and enlightening failure.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종합하여 [구성주의심리학]의 역사적 존재의 의의를 평가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학문에서 학문적 아이디어의 발전은 [잘못된 틀린 생각의 번창]에 대한 반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구성주의심리학은 강한 독단론적 심리학을 전개함을 통해서 그에 대한 반발로 행동주의심리학, 형태주의심리학 등으 심리학사 상에서 중요한 학차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즉, 구성주의 자체가 옳고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구성주의 자체는 틀린 그러한 관점이었는데 그러한 틀린 관점이 강하게 제시됨에 의해서 그런 관점에 대한 반발로써 이후의 심리학의 전체 흐름을 결정하게 되는 행동주의 심리학이나 형태주의 심리학이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반발로 새로운 심리학이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반발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심리학의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사조)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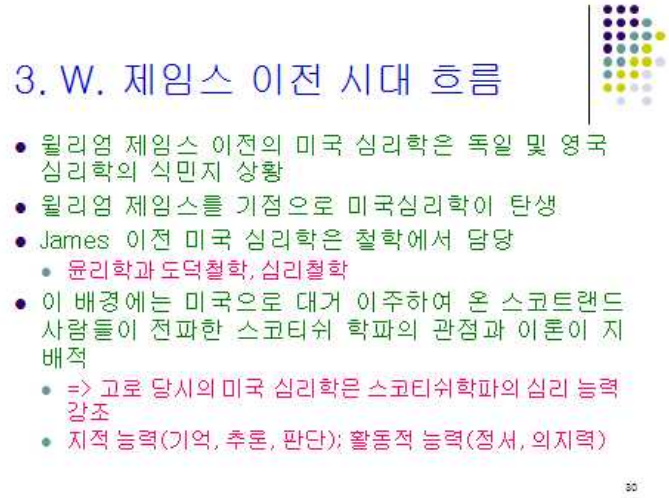
7-1강 file no.29

- Titchener가 기능주의를 비판하기 위하여 생물학과 심리학을 비교하여 한 분류:
- ---
- 생물학 주제 심리학 영역
- ---
- Morphology --> structure <-- 실험심리학: 구조주의 심리학
- Physiology --> function <-- 기능심리학: 기능주의 심리학
- Ontogeny --> development <-- 유전심리학: 발달심리학 유전심리학
- ---
- * 유전심리학은 과정을 중심으로 다루기에 기능주의심리학의 일환

그 다음은 표로 제시 되어 있는데, 티치너가 기는주일을 비판하기 위하여 생물학과 심리학

을 비교하여 구성(구조)주의 심리학, 기능주의 심리학, 발달-유전심리학을 분류하는 틀을 생각한 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자 참고해서 보세요.
다음은 윌리엄 제임스로 넘어 갑니다.

7-1강 file no.30



3. 윌리엄 제임스가 등장하기 이전 시대의 사조

먼저 윌리엄 제임스가 기능주의 심리학으로 넘어가기 이전 시대의 사조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이전의 미국 심리학은 독일 및 영국 심리학의 식민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심리학, 영국 심리학이 학문에서 뒤떨어진 미국에서 자신들의 체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미국의 학문이 진행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윌리엄 제임스가 나서면서 미국 심리학이 비로소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임스 이전 미국 심리학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주로 철학에서 윤리학과 도덕철학, 심리철학 등을 가르치고, 철학에서 심리학의 논의를 담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임스도 심리학이 아니라 철학과의 교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미국으로 대거 이주해온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전파한 스코티쉬 학파의 관점과 이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교육과 학술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했고 잘 짜여있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조금 미개한 문명으로 유럽에 뒤떨어져있는 미국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육, 학문, 대학 이런 것 등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 초기의 대학들이 상당히 스코틀랜드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들어와서 심리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스코티쉬 학파의 심리 능력, 지적 능력이라든지 활동적 능력 이런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 미국에 상당히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7-1강 file no.31

- 미국의 최초의 심리학 분야 교과서
  - Thomas upham의 '주지철학'
    - -> '심리철학 기초' 책
    - 스코티쉬 학파의 지,정,의 구분 강조
- 19세기 말 미국 사회의 변화
  - 대학 창립 왕성- 대학생 인구증가, 대학원교육
  - 새로운 대학이 생겨남에 따라 전통적인 주제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법으로 접근하려는 경향 생겨남
  - ➔ 심리학적 문제에 대하여
    - 전통적 연합주의를 버리고 미국적 실험심리적 접근 모색
    - 그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과정의 심리학이 기능주의 심리학

31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미국의 최초의 심리학 분야의 교과서라고 하는 토머스 업햄의 '주지철학' 이라는 책도 스코티쉬 학파의 기능, 능력 심리학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미국 사회가 변화되면서 대학 창립이 왕성해지고, 대학생 인구가 증가되고 대학원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새로운 대학이 생겨남에 따라서 전통적인 추세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즉, 심리학적 문제에 대해서 분트식의 전통적 연합주의적 접근을 버리고 미국적 실험 심리적 접근을 모색하려는 그런 경향이 생겨났는데, 그 쪽으로 넘어가려는 중간 단계의 심리학이 [기능주의 심리학]이었고 기능주의 심리학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윌리엄 제임스]였습니다.

7-1강 file no.32

4. William James

- 공부 내력:
  - 화학 -> 생리학 -> 의학 -> 천연두 -> 독일 듀모아레이몽의 생리학 -> 심리학
- 관심의 변화
  - 불안신경증 -> 심리학 -> Harvard -> 생리학 강의 -> 심리학 강의 ->철학 -> 실용주의철학
  - 신비주의적 경향이 있었음
- 특성:
  - 예술과 과학의 양면성 - 신비적
- 제자:
  - Hall, Ladd, Calkins

32

4. 윌리엄 제임스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윌리엄 제임스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윌리엄 제임스가 젊었을 때 자기 자신을 그린 자화상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처음에는 화가가 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화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 생리학 ->, 의학 -> 심리학 ->철학] 으로 바꿨습니다. 그의 학문적 관심의 변화는, 처음에는 불안 신경증에 관심이 있다가 점차 심리학, 생리학 그 다음에 철학, 그 중에서도 실용주의 철학으로 관심이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학생 시절 윌리엄 제임스의 노트가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윌리엄 제임스가 학생 시절에 쓴 글 중에 하나가 '강의를 들었는데 한마디도 강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긴 하지만 듣는다는 즐거움을 즐겼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이 심리학사 강의를 들어도 충분히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그 위대한 윌리엄 제임스도 그랬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좀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개요를 살펴보면,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1: 개요

- 어느 한 학파에 속하지 않음, 심리학의 모든 주제에 대한 독자적 이론,
- 통일된 이론체계가 없음
- 중심 저서 : Principles of Psychology
  - 1890, 심리학의 원리: 1377 pp 1892 -> 철학
- 독일의 분트 심리학과는 달리, 실용적 pragmatic 한 미국 경향성 배경에 기초
- 1875, 하바드 대학에 심리학 실험, 실험주의 도입
- 독일 분트심리학과, 진화론, 프랑스 정신병학 연구에서 영향 받음

윌리엄 제임스는 어느 한 학파에 속하지 않고 심리학의 모든 주제에 대한 독자적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의 한 현상만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각이라든지 발달이라든지 이런 한 현상만 다루면 특별한 심리학 이론 체계가 형성되겠는데, 너무 다양한 심리학적 주제를 다 얘기 하려다 보니까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이론은 통일된 이론체계가 없었다 라는 비판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주 저서는 'Principles of Psychology'(심리학의 원리)입니다. 이 책은 제임스가 10여년에 걸쳐서 쓴 책으로 1890년에 초판이 출간되었는데, 독일의 분트 심리학과는 달리 제임스는 실용적(pragmatic) 미국 경향성 배경을 기초로 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그 후의 많은 심리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책에서 심리학적 연구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1875년에 하버드 대학에 교육용(분트처럼 연구용이 아니라) 심리학 실험실을 만들어서 실험주의를 도입했고 독일 분트 심리학과 진화론, 프랑스 정신병학 연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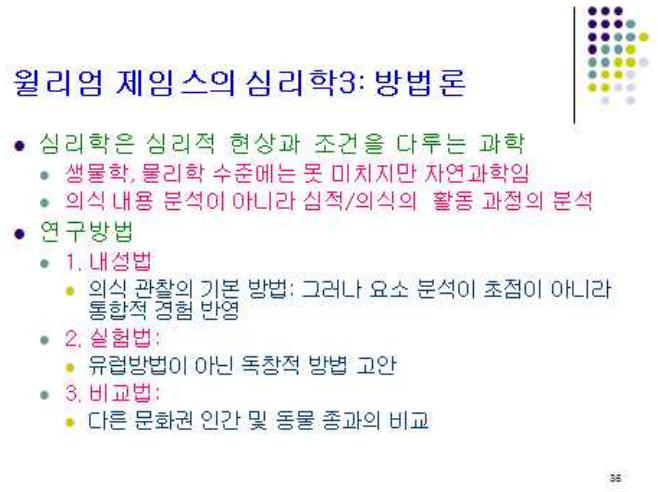
- <그의 '심리학의 원리' 책 국내 번역본에 소개된 내용>
- 윌리엄 제임스 (William James) - 윌리엄 제임스는(1842~1910) 미국의 사상가로 뉴욕에서 태어나 유럽과 미국을 오가면서 심리학, 종교학 그리고 철학을 공부했다.
- 처음에는 풍경화가인 헌트와 함께 그림을 공부하였으나 계속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권유로 하버드 대학의 로렌스 과학부 화학과에 들어갔다.
- 그뒤 다시 진로를 바꾸어 하버드 의과대학에 들어가 1869년 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 또한 제임스는 심리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미국 대학 최초로 1875년 심리학 강의를 시작하였고, 이후 하버드 대학에서 생리학과 철학 교수 등을 지냈다.

국내에 번역된 [심리학의 원리] 책에서 소개된 제임스의 이력은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독일에 유학을 가서 분트의 실험실에도 있었는데, 분트의 영향으로 심리학을 실험에 바탕을 두는 과학으로 형성하는 입장을 분트에게서 이어받았고 의식에 대한 관점도 분트에게서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분트처럼 의식내용을 요소로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해서. 그는 요소가 아닌 기능, 과정, 작용에 초점을 두게 되었죠. 또한 다윈에게서도 영향을 받았는데, 그가 제시한 기능에 대한 관심이나 강조는 다윈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심리학을 생물과학으로 간주하는 것도 다윈에게서 영향을 받았고, 심리현상을 뇌 신경적 사건으로 환원한다는 것도 다윈의 영향이고 심리학에 있어서의 적응 강조도 다윈의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병학을 다뤘던 프랑스의 샤코(Charcot)의 심리적 해리, 그러니까 한 사람 내에 이런 저런 성격이 따로따로 들어 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개념이 제임스의 이론 중 성격 개념과, 자기 개념 이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외에 그는 동료인 철학자인 Peirce와, Dewey의 실용주의(Pragmatism)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7-1강 file no.36

다음에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방법론의 세부를 언급하자면, 그는 '심리학은 심리적 현상과 조건을 다루는 과학.'이라고 규정하여서 심리학이 생물학, 물리학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하나의 자연과학이다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심리학은 의식 내용의 분석이 아니라 심적 의식의 활동 과정의 분석이라고 보았기에, 그는 의식 내용을 분석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심적 의식의 활동, 활동으로써의 마음, 활동으로써의 의식,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분트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 연구 방법에서는 분트와 기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인간과 동물 종간의 비교, 인간 내에 여러 종족간 문화권의 비교를 강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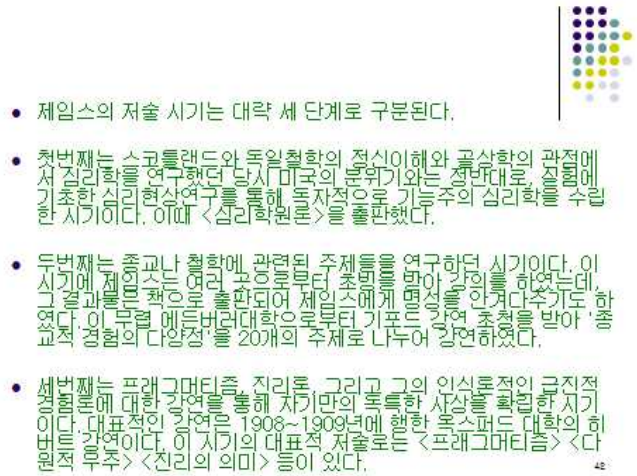
7-1강 file no.37

연구 방법론에서 윌리엄 제임스가 주장한 측면을 보면, 분트는 훈련받은 내성철학자가 의식경험 보고가 가능하다 라고 생각했고, 훈련된 객관적 내성법의 타당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는 실제 의식 경험을 내성하는 것이라기보다 내성자가 예상한 내용의 보고일 가능성, 그것을 제임스는 '심리학자의 오류(Psychologist Error)'라고 했는데 앞에서 티치너는 이에 대하여 '자극 오류(Stimulus Error)'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성 보고자가 보고하는 내용이 실제 의식 경험을 보고 하는 것보다 내성하는 사람이 예측했던, 예상한 내용의 보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참 보고가 아니라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심리학자들의 오류라고 지칭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심리학자들이 내성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제대로 하려면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현상 중에는 객관적 과학적 방법으로 평가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고 따라서 진리의 기준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현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용주의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항상 참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상황에 따라서 맥락 맥락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7-1강 file no.38

윌리엄 제임스 3: 저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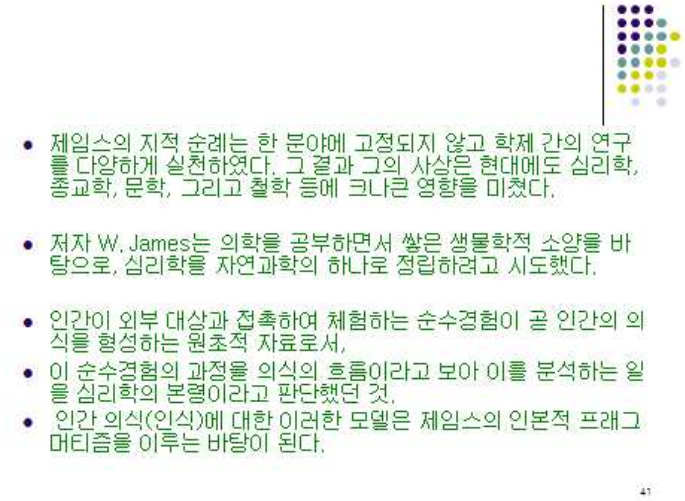
제임스의 저술 시기는 대략 세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당시의 미국 분위기와는 반대로 기능주의 심리학을 수립한 시기로서, 그래서 [심리학의 원리]를 출판한 시기이고, 두 번째는 종교나 철학에 관련된 주제들을 연구하던 시기, (그것에서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것을 강의하고 책을 냈죠). 세 번째는 [실용주의(Pragmatism)], [진리의 의미] 등을 논술한 시기이지요.

[심리학의 원리] 책의 한국판 번역본에 실린 그의 저술의 핵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지적 순례는 한 분야에 고정되지 않고 학제 간의 연구를 다양하게 실천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사상은 현대에도 심리학, 종교학, 문학, 그리고 철학 등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의학을 공부하면서 쌓은 생물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심리학을 자연과학의 하나로 정립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외부 대상과 접촉하여 체험하는 순수경험이 곧 인간의 의식을 형성하는 원초적 자료로서, 이 순수경험의 과정을 의식의 흐름이라고 보아 이를 분석하는 일을 심리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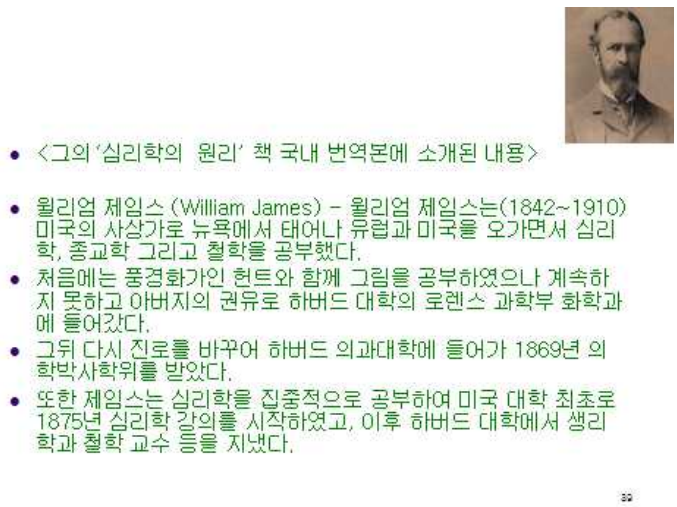
본령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인간 의식(인식)에 대한 이러한 모델은 제임스의 인본적 프래그머티즘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기에 나온 다음 윌리엄 제임스의 저술을 살펴보면, [심리학의 원리(Principles of Psychology)]라는 책이 1890년에 발간되었고, 우리말로 2005년에 번역되었습니다.
[심리학의 원리]라는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작은 문고판 책 세권으로 나왔는데 목차가 여기 있으니까 한편 살펴보도록 하세요. 우리말 번역 사이트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books.google.co.kr/books/about/%EC%8B%AC%EB%A6%AC%ED%95%99%EC%9D%98_%EC%9B%90%EB%A6%AC_1_%EB%8C%80%EC%9A%B0%EA%B3%A0%EC%A0%84%EC%B4%9D%EC%84%9C.html?id=l0d9MgAACAAJ&redir_esc=y

7-1강 file no.39



이 책에 대한 소개는 다음에 있습니다.

- 실험심리학적 방식을 바탕으로 심리현상에 기능주의적으로 접근하면서 심리적 경험을 묘사, 서술하고 심리학의 제반 학설들을 수집, 정리한 책이다. 심리적 경험의
- 다양한 부분들을 거의 망라한 2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마다 다루는 주제들이 심리학적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하는 철학적, 논리적 근거를 밝히고, 각 주제들 사이의 관계도 확실히 함으로써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체계를 정립하고 있다.
- 1890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되었으나 그 내용이 워낙 난해한 데다 20세기 초 프로이트와 행동주의의 유행에 파묻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정신분석학과 행동주의의 영향력은 퇴조하였고, 오늘날 심리학 연구에서 이 책의 기획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44

심리학의 원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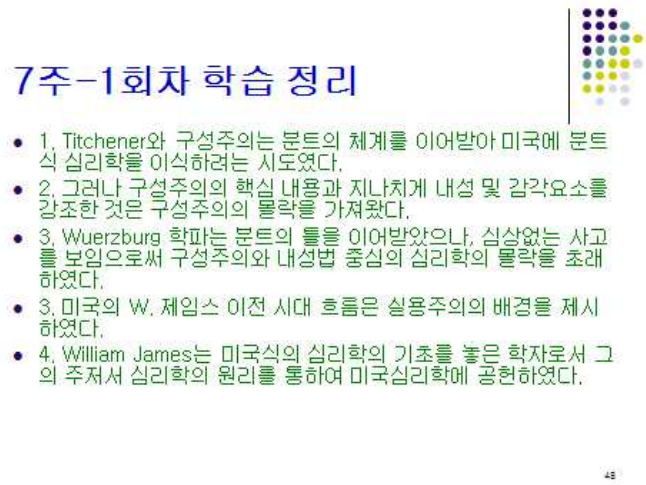
- 정양은
  -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한국심리학회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을 두루 지냈다. 2004년 타계할 때까지 60년을 심리학 연구에 몸 바친 원로 심리학자. 지은 책으로는 <심리학 통론> <사회심리학> <한국의 학술 연구 : 심리학편> 등이 있다.

48

심리학의 거의 모든 면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실험 심리학적 방식을 바탕으로 심리현상에 기능주의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러니까 감각 요소를 분석한 것이라기보다는 심리적 경험을 묘사 서술하고 심리학의 제반 학술들을 수집 정리한 책입니다. 2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번역된 책에 있는 저자 제임스에 대한 소개를 보세요. 다음 사이트에 책의 장별 목차가 소개되어 있고, '심리학의 원리'라는 책을 번역한 서울대 심리학과 정양은 교수(번역후에 작고)의 사진과 역자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28 개 장별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머리말
제1장 심리학의 범위·15 / 제2장 뇌의 기능·35/ 3장 뇌 활동의 일반 조건·149 / 제4장 습관·189 / 제5장 자동장치 이론·235 / 제6장 정신 소자 이론·267/ 제7장 심리학의 연구 방법과 그 함정·337 / 제8장 정신과 여타 사물의 관계·365 / 제9장 사고의 흐름·409 / 제10장 자기 의식·525/ 제11장 주의·723 / 제12장 개념·829/

제13장 변별과 비교·883 / 제14장 연합·999 / 제15장 시간 지각·1097 / 제16장 기억·1163 / 제17장 감각·1247 / 제18장 상상·1321 / 제19장 '사물'지각·1383 / 제20장 공간지각·1485 / 제21장 현실 지각·1747 / 제22장 추리·1825 / 제23장 운동창출·1907 / 제24장 본능·1923 / 제25장 정서·2027 / 제26장 의지·2105 / 제27장 최면·2291 / 제28장 필수 진리와 경험의 결과·2331/
발문:『심리학의 원리』출간에 부쳐
윌리엄 제임스 연보

이상으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앞부분을 얘기한 것으로써 7주 1회차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주 2회차 강의에서는 윌리엄 제임스의 나머지 이론들 그리고, 기능주의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